





소개

Introduction

지난 <14m²>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특히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식물을 중심으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삶과 주거 방식에 의문을 던지는 작업이었다. 특히 가로수 보호판의 규격화된 크기, 네모난 공간으로 규정된 1평 주거 공간의 유사성에서 출발하여, 대안적인 주거 개념을 상상해보는 일종의 사변적인 디자인 프로젝트였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14m²>의 비판점을 이어받아, 한 기업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속해 있던 공동체—즉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용당’이라는 마을을 기억하기 위한 대항 기억—대항 역사 쓰기의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근대 서구에서 탄생한 것으로 여겨졌던 지도 제작 방식의 이성 중심적이고 명료한 체계, 그리고 자연을 지배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했던 지도학적 시각에 도전하며, 그 안에서 감춰졌거나 잊혀진 것들의 생명력과 삶의 가능성을 다시 찾고자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적 경험과 물리적 흔적을 통해 기억과 공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 중심에는 마을에 남아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초기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나무는 왜 남아 있게 되었을까? 두 그루의 나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 나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가족들과 공사 현장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은 나무에 대한 기억을 통해 고향 마을을 떠올린다는 것, 그리고 나무들이 마을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My previous project, 14m², focused on the lives of people and plants living in the highly standardized and uniform spaces of South Korea, especially in cities like Seoul. It started by comparing two things: the fixed size of tree guards installed along sidewalks, and the 3.3m² unit that defines the smallest legal housing space. The similarity between these two led me to imagine what alternative forms of living could look like. The result was a speculative design project about different ways of dwelling.

This new project continues the critical questions raised in 14m², but shifts focus to a more specific situation—one where people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towns because of a corporate development project. I focus on the village of Yongdang, and ask how we can remember a place like this. I explore memory as a form of resistance (Counter-memory)—an effort to hold on to stories and spaces that might otherwise be erased.

The project also questions the rational and precise worldview that lies behind modern map-making. Mapping often treats land as a resource to be measured, controlled, or developed. Instead, I try to look for the things that have been hidden or forgotten within these systems—things that still carry meaning and life. At the center of this project are two remaining trees in the village. These trees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a series of questions: Why were these two trees left behind? Do they hold symbolic meaning? What stories do people

알게 되었다. 반면 마을의 외부인에게 나무는 단지 행정 규정 상 제거하거나 보존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며, 이로 인해 나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하게 되었다.

나무와 관련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마을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면, 그 장소의 기억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못한 마을은 어떻게 기억되고, 보존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어떤 것은 더 중요하다고 믿고, 다른 것은 쉽게 잊혀져도 된다고 여기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점차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

또한, 이주단지에 이식된 당산나무와 문화재의 뿌리와 얽혀 있는 향나무 이야기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는 마을이 사라졌음에도 남아 있는 나무들의 생명력과, 나무가 차지했던 공간의 얽힘에 대한 상상력으로 주제를 확장한다. 이 관점은 단순히 마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는 시도다. 이는 애나 로렌하웁트 칭이 <세계 끝의 버섯>에서 이야기한, “폐허에서 생명을 찾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리서치의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남는다: 나무의 뿌리와 흙, 곰팡이의 얽힘 관계를 통해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잘린 가지에서도 있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가족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을 찾는다는 건 무엇일까?

connect to them?

Through interviews with family members and construction site officials, I learned that people often remember the village through the trees. The trees became symbols—markers of a place that no longer exists. At the same time, I also learned that for people outside the village, the trees are just objects to be preserved or removed depending on administrative rules. The trees exist in the middle of these different viewpoints and purposes.

These simple questions about the trees eventually led to deeper ones: If the village can't be fully restored, how can its memory be shared with others? How do we remember a place that was never officially recorded? Why do some things get remembered and others are forgotten?

These questions became clearer through the process of interviewing and recording. The story of the dangsan tree, which was moved to the new housing complex, and the juniper, whose roots are still intertwined with cultural remains, led me to think more deeply about what survives after a village is gone. This project is not just about mourning what has disappeared. It's also about imagining what continues after that disappearance. It reminded me of what Anna Lowenhaupt Tsing describes in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the idea of finding life in the ruins. Through these trees, I began to think about what it means for something to stay alive after everything else is gone.

From here, a few questions remain: Can we remember the history of a village through the roots, soil, and connections around these trees? Can the strength of a tree—one that continues to grow even after being cut—offer a new way to think about the history of a place and the lives of the families who lived there? Will I be able to find an answer to these questions? And what does it really mean to find an answer?



시적 Poetic 리스트 List

실용적 리스트

=

관계가 명백한 것들
논리적인 것들
명징한 것들
명확한 것들
이성적인 것들
이해하는 것들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역인 것들
지시하는 것들
질서가 부여된 것들
결합적인 것들
전체적인 것들
연속적인 것들
선형적인 것들
단일한 것들
나무를 닮은 것들
직유적인 것들
직설적인 것들
본질의 것들
단정하는 것들
명시적인 것들
달혀있는 것들
경계가 있는 것들
또렷한 것들
완결되는 것들

=

시적 리스트

≈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어렵쑥한 것들
막연한 것들
감각의 것들
인지하는 것들
형언할 수 없는 것들
열거하는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
혼돈스러운 것들
분리적인 것들
파편적인 것들
비연속적인 것들
비선형적인 것들
다의적인 것들
리좀(rhizome)을 닮은 것들
은유적인 것들
수사적인 것들
속성의 것들
상상할 여지가 있는 것들
암시적인 것들
열려있는 것들
아득한 것들
현기증나는 것들
완결되지 않는 것들

≈

내가 낯설다고 인식하는 것

이른 오전 산책
사람들이 바쁘게 이동한다 어딘가로
자동차를 피하는 사람들
좁아지는 도로폭
반복적인 출차주의
점점 분명해지는 소리
청소당한 거리
아무도 없는 골목
모퉁이를 돌면 있는 무언가
숨어있는 동물
무리없는 산비둘기
도시형 벌목꾼
꽃이 핀 립살리스
고요한 울타리
높은 벽돌집
뜨거운 날씨
바람부는 활주로
공기의 저항
갈려있는 개
막혀있는 공간
잠자기 모드
울적해진 침대
퀵사이즈 침대
너무나 큰 것들
파랗게 질린 하늘
어지러운 몸
거울을 보다
거울 속 자기자신
도시의 까마귀
어슬렁대는 청록빛 까치
상냥한 콜센터직원
영원한 통화연결음
시간 제한이 있는 팝업창
순환형 열차
심야 버스
다가오는 화물트럭
소리치는 도시의 행인
그럴듯한 상상
활주하는 전투기
난입하는 철새들
옷을 뒤집어쓴 채 잠든 사람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산책자
모여있는 등산객
기억 속에 존재하는 마을
사라진 풍경
유령처럼 서서히 떠오르는
그 날의 추락하는 별빛
너무나 생생한 과거
도시의 공동묘지
찬란한 미래
창밖으로 무너져내리는 건물

시적 리스트—작성하기

움베르트 에코의 시적 리스트(Poetic List)를 도구삼아 관심사를 수집한다.

서울 자취방에서 매일 뒷 산으로 산책을 나가면서 보는 풍경에서 비일상적이고 '낯설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시적 리스트를 작성했다. 여기서 '시적'이라는 것은 명료하다기보다는 애매모호하고, 계획된 것이기 보다는 우연적이고, 일관성이 없어보이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른 오전 산책 → 시간대에 따른 촉감
 사람들이 바쁘게 이동한다 어딘가로 → 군중의 움직임/움직
 자동차를 피하는 사람들 → 기계와 인간의 공존
 좁아지는 도로폭 → 권력자의 분배 / 불균형한 구조
 반복적인 출차주의 → 조용함의 균열
 점점 분명해지는 소리 → 소리의 물질성 / 소리의 환영
 청소당한 거리 → 추방된 대상 / 보이지 않는 노동
 아무도 없는 골목 → 부재의 형상화
 모퉁이를 돌면 있는 무언가 → 인지부조화 / 보여지는 것의 두려움
 숨어있는 동물 → 실재계의 침입
 무리없는 산비둘기 → 공동체의 상실
 도시형 발목관 → 인지부조화
 꽃이 핀 립살리스 → 생명력의 목격
 고요한 율타리 → 흐릿한 흔적(흔터) ;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단어
 높은 벽돌집 → 권력의 표상
 뜨거운 날씨 → 기후적 기억
 바람부는 활주로 → 외상적인 경험
 공기의 저항 → 율령거림
 갈라있는 개 → (역설적으로) 추방된 비인간
 막혀있는 공간 → 물리적 경계
 짐자기 모드 → 불가능한 것으로부터의 일탈
 물적해진 침대 → 감정의 형상화
 편사이즈 침대 → 언어의 권력 / (비)규격화된 공간 / 복합적인 차원
 너무나 큰 것들 → 물리적 괴리감
 파랗게 질린 하늘 → 시각적 기억
 어지러운 봄 → 계절성 감각
 거울을 보다 → 보여지는 것의 무의식
 거울 속 자기자신 → 비체적 신체
 도시의 까마귀 → 문명과 자연의 공생
 어슬렁대는 정복빛 까지 → 실재계와 상징계의 대비
 상냥한 콜센터직원 → 인지부조화(엔캐니)
 영원한 통화연결음 → 수신인의 부재; 청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단어
 시간 제한이 있는 팝업창 → 시간의 권력과 통제
 순환형 열차 → 뫼비우스의 띠 (현실과 꿈의 경계)
 심야 버스 → 중간지대 (중간적인 것)
 다가오는 화물트럭 → 상상과 현실의 중첩
 소리치는 도시의 행인 → 피억압자의 저항
 그럴듯한 상상 → 서사와 신화 / 재구성되는 내러티브
 활주하는 전투기 → 낯설지만 동시에 친숙한 것 / 기억의 도래성 / 외상적 기억
 난입하는 철새들 → 실재의 침입 / 외상적 기억
 옷을 뒤집어쓴 채 잠든 사람 → 추방된 대상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산책자 → 윤리적 딜레마 속 방관자
 모여있는 등산객 →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
 기억 속에 존재하는 마을 → 재현 불가능성 / 기록의 구멍(맹점)
 사라진 풍경 → 추방된 대상 / 흔적(흔터)
 유명처럼 서서히 떠오르는 → 모호한 감각의 선명화
 그 날의 추락하는 별빛 → 편집된 프레임
 너무나 생생한 과거 → 기억의 도래성(폭력성)
 도시의 공동묘지 → 불편한 어두운 면
 찬란한 미래 → 실재의 은폐
 창밖으로 무너져내리는 건물 → 일상적 참사

시적 리스트—정제하기

앞서 적었던 리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언어화하한다.

리스트를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각 단어들 간의 관계를 관통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다. 리스트에서 중복되나 반복되는 단어들에서 공동체, 상실, 기억 그리고 소외된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어렵פות하게 직감하게 되었다.

내가 낯설다고 인식하는 것 - 정련하기

- 청소당한 거리** → 추방된 대상 기업이나 정치권력에 의해 이주하기를 강요당한 대상들과 이 관심을 공유할 수 있을까?
- 영원한 통화면결을** → 지연된 기다림 무엇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나의 감각/감정은 나만의 감각일까?
- 순환형 열차** → 반복과 굴레 (외바우스의 피)
- 기억 속 마을** → 재현 불가능성 / 기록의 구멍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해 사회·문화·역사·정치·환경·기술적 맥락을 적용해볼 수 있을까?
- 무너져내리는 건물** → 일상적 참사 일상적인 공포감, 일어날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맞닥겨와 불안해하는 감각은 나만의 감각일까? 이러한 감정에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은?

그리움, 상실감, [이라는 두가지 감정의 축을 기준으로 단어들을 정련하기

상실감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상실감은 어떻게 정치권력에 이용되는가?
 상실감은 끝도없는 채로 결국 채워지지 않을까?
 반복과 굴레, 시간과 시대에 갇혔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
 대중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주체(기업, 사회, 정치, 대중문화 등)?
 혹은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

시적 리스트—정련하기

리스트에서 보다 섬세하게 내가 관심 가
 는 것들을 응축한다.

개인적인 관심사로부터 시작된 리스트 목록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관심사로 확장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울에 살면서 용당 마을(고향)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즉,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정수당거리
영원통의결
기억속마를
순환행열차
무너져내리는
거울

인터뷰 Interview

마을과 관련된 기록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람들의 기억을 거쳐야 했다. 나무를 기록한다는 것은 단지 식물 하나를 좇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와 함께 얽혀 있는 삶과 목소리, 상실의 층위를 따라 걷는 일이었다. 이 작업은 무엇보다도 ‘공동’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는 실천이 되어야 했다. 나는 창원에 계신 할머니와 고모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로 했다.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 나무 어릴 때도 거기 있었어요? 이 나무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 근처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누가 심은 건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예전에 이 나무 근처에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전에 이 나무를 두고 무슨 얘기 했어요? 이런 나무는 베면 안 된다거나 그런 말 들으셨어요? 그 나무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나무가 없어진다면 아쉬울까요? 아니면...

이 인터뷰들은 다음 연구의 갈피를 잡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언제 누가 이 나무를 심었는지, 왜 지금까지 남아 있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가 있음으로써 말할 수 있게 된 이야기들이었다. 가족들은 잊혀졌던 이야기를 말하고, 나는 그것을 듣는다. 이 상호작용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조심스러운 형태의 기록이 아닐까?

To begin documenting the village, I had to first go through people's memories. Recording the trees wasn't just about following a plant—it meant tracing the lives, voices, and layers of loss entangled with its roots. More than anything, this work needed to be a way of recovering a sense of what it means to live together. I decided to start by listening to the stories of my grandmother and aunt, who now live in Changwon.

These were some of the questions I asked:

Was this tree here when you were young?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see this tree? Do you remember anything that happened around here? Do you know who planted it, or when it was planted? What did people used to do around this tree? Do you remember anyone talking about it in the past? Have you heard people say a tree like this shouldn't be cut down? Does it remind you of someone? If the tree were gone, would you miss it? Or...?

These interviews helped shape the direction of the next phase of this research. More important than finding out who planted the tree, or why it has remained until now, were the stories that could be told because the tree was still there. Through the tree, my family recalled stories they had long forgotten. I listened. That exchange—of memory, of presence—felt like one of the most careful and honest ways I could begin recording anything at all.



고모 인터뷰



할머니 인터뷰



마을의 당산나무와 고향 집터에 있던 향나무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그 나무들과 함께 마을의 잔재들이 머릿속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무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사라진 후였다. 나는 2019년, MRO 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마을이 인수되고, 한국항공과의 보상 협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마을을 기록해왔다. 그때 처음으로 마을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의 풍경을 상상해보게 되었고, 아직은 남아 있는 마을을 지금부터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록을 시작한 뒤 몇 년 동안 마을은 눈에 띄게 바뀌어 갔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었고 우리 가족의 집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시기에는 1동의 일부 과수원과 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있었고, 1동 주민들은 천천히 이주를 준비 중이었다. 보상과 이주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주민 간의 갈등, 마을과 기업 간의 협상, 공동 지분에 대한 소송 등 돈과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중첩되어 있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을의 구석 구석을 사진으로 남기고, 변화하는 공사 현장을 따라가며 기록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2022년에는 우리 가족도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부모님은 사전 시내의 아파트로, 할머니는 큰아들이 있는 경주로 이사를 가셨다. 할머니는 이주 이후 계속 힘들어하셨고, 경주에 간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창원에 있는 고모 댁 근처로 거처를 다시 마련했고, 지금은 창원 의창구의 작은 빌라에서 지내고 계신다. 그 무렵부터 나는 마을을 구성하고 있던 풍경보다도, 그 자리에 살아남은 나무들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마을은 사라졌고, 구조물이 정리되고 있었지만 마을 1동과 2동 사이 언덕 길에 심겨 있던 당산나무만은 남아 있었다. 당산나무는 공사장 귀퉁이에 이식되어 있었고, 가지가 잘린 채 현장에 심겨있었다. 나에게는 그 자체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마을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 풍경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나무가 지금 이 시점에 나를 향해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다.

데리다는 자신의 저서 『맑스의 유령들』에서 유령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과거의 어떤 요소나 망령이 현재에 지속적으로 현존하지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한다. 나는 지금의 마을이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이 마을은 지도나 행정상에서는 이미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현실 어딘가에 남아 있으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는 유령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공사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던 올해 4월, 다시 찾은 마을에서 돌아가신 큰 아버지가 심었다

When I came across the dangsan tree and the juniper tree near my family's old house still standing, I couldn't see them as just plants. Those trees, still rooted in place, seemed to carry what was left of the village. Everything else around them was already gone. I started documenting the village in 2019, when I first heard that the area had been acquired for the MRO industrial complex, and that compensation negotiations were starting between KAI and the residents. That was when I first pictured what the village might look like after it disappeared. It felt urgent to start recording what was still there before it vanished.

Over the next few years, the village changed rapidly. Between 2019 and 2022, the village meeting hall was still being used by residents for shared meals, and my family's house was still there. But gradually, more people moved out, and part of the orchards and fields in District 1 had already turned into a construction site. The process of relocation and compensation was far from simple. Disputes broke out between neighbors, between different parts of the village, and between the village and the company. Issues of land ownership and how to divide compensation overlapped in complicated ways. Through it all, I was living in Seoul. I was part of the village, yet not entirely within it. I was both inside and outside. From where I stood, the only thing I could do was to keep photographing—to follow what was changing and hold onto what was still there.

In 2022, my family left too. My parents moved into an apartment in Sacheon, and my grandmother moved to Gyeongju to live with her eldest son. But she struggled to adjust, often telling me on the phone that she regretted leaving. Eventually, our family helped her relocate again—this time to Changwon, near my aunt's home. It was around then that I start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trees than to the village itself. The village had disappeared. The buildings had been cleared. But the dangsan tree, which once stood between Districts 1 and 2 along a hill path, remained. It had been relocated to a corner of the construction site, its branches cut back. To me, it didn't feel random. The tree seemed to be pointing to something, as if it were still trying to say something.

Derrida's concept of "hauntology," from *Specters of Marx*, came to mind. He describes it as the way certain traces from the past—ghosts, memories—remain with us even when they're no longer fully visible. I felt like the village had entered that state. Officially erased from maps and documents, yet still present in a way that couldn't be completely denied. A ghosted place.

For a long while, I didn't go back. Then in April this year, I

는 향나무가 아직 베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산나무는 이주 단지 초입에 이식되어 있었다. 공사 관계자에게 당산나무가 왜 살아남았는지 물었을 때, 소장은 ‘규정에 따라 수목의 일부를 이식했다’고만 답했다. 마을 주민들이 특별히 부탁했던 것도 아니고, 그 나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기대하던 답변은 들을 수 없었고, 나무는 행정 규정에 따라 선택되어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터에 남아 있던 향나무는 문화재 발굴 작업 때문에 아직 베어지지 않았지만, 발굴이 끝나면 임목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가족들과 나무를 옮겨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심을 땅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사장 소장도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리서치에서는 용당 마을 공사 현장, 이식된 당산 나무, 아직 베어지지 않은 향나무를 영상으로 남겼다. 그리고 창원으로 가서 할머니, 고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카메라를 들고 가는 것이 망설여졌는데, ‘할머니, 이건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찍는 거야’라고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고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모가 “그 나무 없으면 이제 기억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라고 말했고, 손바닥을 펴 보이며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고모의 말과 표정과 몸짓이 기억에 아주 많이 남았다.

기억은 종종 장소에 의존한다. 사라진 장소가 기억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향나무를 통해 더 분명히 알게 된 것 같다. 기록이라는 행위는 단지 남아 있는 것을 복사하는 일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는 일일지도 모른다. 지금 사라진 마을을 직접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있었던 시간과 장소를 나름의 방식으로 구성하고 전달하는 일은 가능하다. 단지 풍경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 안에 담긴 나와 가족들의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 지금 남아 있는 나무와,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마을의 시간과 소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 그 과정을 이어가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visited again and found that the juniper tree my late uncle had planted was still standing. The dangsan tree had been moved to the entrance of the resettlement complex. I asked the site manager why the tree had been saved. He told me it was because of a rule that requires a certain percentage of trees to be transplanted during development. That was all. It wasn't because someone had asked for it, or because anyone had remembered what the tree once meant. It had survived through regulation, not intention. The juniper tree at the house site had been left in place only because archaeological work was still ongoing. Once the excavation ends, it will be categorized as “timber waste.” My family talked about trying to move the tree ourselves, but we had no land to replant it, and the cost was too high. The site manager also told us that no one else wanted it.

During this research, I filmed the construction site, the relocated dangsan tree, and the juniper that was still standing. I also visited my grandmother and aunt in Changwon. I was hesitant to bring my camera at first, but I told my grandmother, “I’m filming this because I want to remember.” That helped me begin. While talking with my aunt, she said, “If that tree disappears, there’ll be nothing left to remember.” She opened her palm and said, “See? There’s nothing.” That moment—her words, her hand—stuck with me.

Memory often relies on place. Through the juniper tree, I began to understand more clearly how, when a place is gone, the structure for remembering can collapse with it. Maybe documenting isn't just about saving what's left. Maybe it's about finding a new form for what's already lost—so that it can still be remembered. I can't rebuild the village as it was, but maybe I can hold onto what was there and share something of it. It's not just about preserving a landscape. It's about shaping a frame that helps explain what once existed, and how it disappeared. With these trees still standing, and with the memories carried by my family, I want to keep asking what it means for something to be gone—and what it takes to keep remembering.





